

광주 상무 홈 첫승 사냥 나선다

오늘 오후 3시 월드컵 경기장서 대전과 대결

최원권·김정우 상승세... 침체 팀 분위기 반전

광주상무가 홈 첫 승리 사냥에 나선다.

2010 K-리그 디펜딩 챔피언인 광주 상무가 3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과 정규리그 6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5라운드까지 상무가 거둔 성적은 1승2무2패. 시즌 개막전 이후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며 12위로 하위권에 처져 있지만 상무는 앞선 경기에서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K-리그 디펜딩 챔피언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지난주 무패행진으로 2위까지 치고 올랐던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제주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경기는 0-0 무승

부로 끝났지만 상무의 저력을 보여준 한편 승부였다.

선수들의 잇단 퇴장으로 출장정지 선수가 늘어난 것은 상무의 고민이지만 최원권과 김정우가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던 주광윤의 복귀도 상무 공격라인에 힘을 더해줄 전망이다.

상무는 지난해 대전과의 홈 개막전에서 3-0 대승을 거두며 '1위 돌풍' 행진에 속도를 냈었다. 또한 올 시즌 대전이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

하며 최하위로 떨어졌지만 상무는 대전을 제물로 삼아 홈 첫 승을 장식하겠다는 각오다.

주전 선수들의 퇴장으로 침체된 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상무와 '탈골재'를 향한 대전의 반격이 주말 광주 월드컵경기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한편 지난주 강원 FC에 일격을 당한 전남 드래곤즈는 이번주 휴식기를 갖고 7라운드 상무와의 맞대결을 준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위성미가 2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의 미션힐스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나비스코 챔피언십 1라운드 13번 홀에서 세컨드 샷을 한 후 티구방향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비스코' 장타자들의 잔치?

1R 페테르센 5언더파 선두

김송희·민나온 공동 3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은 장타자들의 잔치가 될 전망이다. 2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힐스골프장(파72·6702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드라이브샷 비거리가 260야드는 넘어야 명함을 내밀 수 있었다.

이날 277야드까지 드라이브샷을 날린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은 버

디 5개를 골라내며 5언더파 67타로 단독 선두에 나섰고 역시 장타자로 이름난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1타 뒤진 4언더파 68타를 치며 바짝 뒤를 쫓았다.

10위 이내에는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3위에 오른 김송희(22·하이트)와 민나온(22) 둘 뿐이었다.

위성미는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 14위에 머물렀다. 지난주 KIA클래식에서 우승, 미국 무대에도 이름을 알린 서희경(24·하이트)과 신지애(22·미래에셋)는 이븐파 72타에 그쳐 23위로 처졌다. /연합뉴스

전국종별태권도 선수권 구례서 개막

오늘부터 일주일간

2010년 전국종별(중학부)태권도 선수권대회가 3일부터 7일간 구례에서 열린다. 대한태권도협회 주최, 전남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205개교 남녀 2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구례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른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금까지 각종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없는 선수들만이 참가하는 신인 전용문이다.

경기는 남녀 11체급으로 나뉘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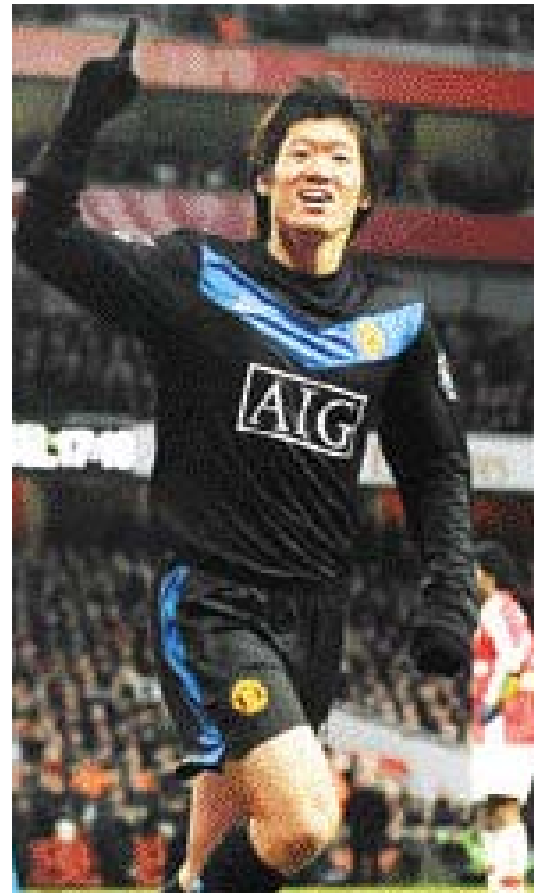
분30초 3회전으로 진행된다. 또 대한태권도협회의 2010년도 경기규칙을 적용하고, 선수보호를 위해 마우스피스와 여성용 살보대 착용을 의무화했다.

개회식은 오는 5일 오전 11시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 기간 중 선수단과 선수 가족 등 2만명 이상이 이곳에 머물 것으로 보여 약 12억여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박지성, 오늘밤 첼시 골문 연다



맨유 EPL 1위수성 메신저 출격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활력소 박지성(29)이 첼시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 향기에 다시 나선다.

맨유는 3일(이하 한국시각) 오후 8시 45분 첼시를 홈구장인 영국 올드 트래퍼드로 불러들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3차전을 치른다. 박지성은 최근 3경기에서 두 골을 터뜨리고 어시스트 1개를 배달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11일 이탈리아 AC밀란과 챔피언스리그 16강전과 21일 라이벌 리버풀과 리그 경기에서 골맛을 봤고 14일 풀럼과 리그 경기에서는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의 골을 도왔다.

맨유는 현재 승점 72로 첼시(승점 71)에 1점을 앞선 선두를 달리고 있다. 리그 우승을 위해 승점 3이 적지 않다는 맞대결에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맨유는 골잡이 웨인 루니가 땀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발목 인대를 다쳐 재활하기 때문에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맨유가 어떤 전형으로 공격력을 보강할지, 중원의 활력소 박지성에게는 어떤 임무가 부여될지 더욱 주목되는 경기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측

- ▲정원균·김경숙씨 장남 경훈군 전익수(우)상학·박영순씨 차녀 영미양=3일(토) 오후 1시 메리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 ▲윤순임씨 오남 김오곤군 김환

식·김화자씨 조카 김정자양=3일(토) 광주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유용태·박미숙씨 차남 민원군 김생옥·허순심씨 장녀 미령양=4일(일) 낮 12시 완도군 완도읍 다리아예식장

무음

- ▲정봉이씨 이수창·수인·수태·

경자·경옥·경남씨 모친상=발인 4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이상남씨 조호장·정자·정숙·성애·정란·정희씨 모친상=발인 4일(일) 화동 금호 장례식장 402분향소. 062-227-4000.

▲정용식씨 재후·인배·성배·미옥·명순·영란씨 부친상=발인 4일(일) 화동 금호 장례식장 201분향소. 062-227-4000.

마을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 227-4000
故 조기혁님(남/74세)
 주/부족 조국현/박은주 주현/주영민/조금자/장영희/김미/정호영
 호실 중실 401호
 발인 04월 03일
 장지 영락공원
故 김옥철님(여/85세)
 주/부족 박문환/오은순 주경희/신익문
 호실 특실 301호
 발인 04월 03일
 장지 영락공원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넓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중앙상조가 지켜주는 문화
 가입문의 1688-3740
 현대중앙상조 권속도원 노우현

대한민국 중심매체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방송전화: 02-7379-8888

RADIO
 100.7MHz
 100.7MHz
 100.7MHz

가톨릭방송
CBS
 080-800-1031

ITV
 100.7MHz
 100.7MHz
 100.7MHz